#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

Th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Korean Elderly according to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roductive Activities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 수 홍 영 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 이 정 훈***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Young Joon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Doctoral Student.* Lee, Jung-Hoon


〈목 차〉


Ⅰ. 서론 Ⅳ. 연구결과
Ⅱ. 이론적 배경 Ⅴ. 논의 및 결론
Ⅲ.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ductive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for old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old age in Korea. The subject for this study is 226 older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e work · fare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ver.18.0)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were utilized. The result revealed that productive activities



* 본 연구는 2014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주저자: 홍영준(yhong@smu.ac.kr)
*** 교신저자: 이정훈(jun251418@hanmail.ne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노후준비도(Preparation for Old Ag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ies)

## I. 서론

산업화에 의한 빠른 성장이 가져온 경제적 윤택함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 연장을 가져왔고, 세계의 많은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2013)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고령 사회에,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급속히 늘어난 절대 노령인구수와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추세 라고 할 수 있다. 초 고령 시대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해왔던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개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의식이 거의 없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지원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2010년 UN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 가능인구, 즉 15세에서 64세까지의 세계 평균 기준은 2005년 9.1명, 2010년 8.6명, 2030년 5.6명, 2050년 3.9명이나 우리나라는 2005년 7.7명, 2010년 6.5명, 2030년 2.7명, 2050년에는 1.9명으로 국민의 노인 부양부담이 매우 큰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타 국가와 비교 시 정부의 노후보장의 수준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2년 노후보장율의 경우 OECD국가의 노후보장 평균은 21.8%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3%이다. 이는 노후생활을 개인의 노력 및 준비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임을 뜻하며 이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5년도에 초 고령 시대와 함께 오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으며 저 출산 문제와 맞물려 초 고령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선례는 우리나라가 곧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이며 이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알려준다(노무라 종합연구소, 2014). 통계청(2011)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61%로 노후준비와 함께 이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의 증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 없음'(49%), '앞으로 준비'가 (24%), '자녀에게 의탁'(17%) 등으로 나타나 약 1/2 정도가 스스로의 노후준비가 불가한 상황이며 정책적 배려가 없다면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 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답변이 58%에 달하여 노인빈곤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에는 가계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생활단계에서 축적해 놓은 재산이나 저축을 처분하여 가계지출에 소요되는 금액을 충당하거나, 혹은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증가된다(Clark & Spengler, 1980). 최근 평균 결혼 연령 및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이 갖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 부양의 이중 부담은 노년층 노후준비의 경제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 노년층의 위・아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수직적 확대가족 구조 안에서 노후준비에

따른 가계 간 경제적 자원 이전 행동으로 나타난다(서지원, 2008; 박혜성·계선자, 2008; 고선강, 2011; 곽인숙, 2011; 장연주·서지원, 2011). 현재의 가족 구조에서 불가피한 혹은 당연시 되는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은 현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욱 어렵게 한다.

통계청(2010)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41%)과 건강문제(40%)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준비부족의 심각성은 노후의 안정된 삶과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안정에 대한 준비 및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 보유율은 일반국민의 2배에 달하며,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진 노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09).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0대 후반에는 85% 정도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부(2009)의 노인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노인 1인당 87만5,000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가 55%, 자녀가 부담한 경우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화에 수반되는 건강의 문제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되며(김양이 외, 2008), 이러한 건강의 악화는 경제적 능력 상실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킴으로써 노년기 노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가족주의를 중시하여 자녀와 부모관계가 의존적이고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안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곽인숙, 2011). 과거에는 주로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방적인 관계였으나, 최근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도 자녀에게 아이 돌보기, 가사일 돕기,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도움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선강, 2011) 노인의 노후준비에 가족자원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노후 생활 준비는 신체·경제·사회적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나 준비 없이 맞는 은퇴와 같은 경제활동의 중단은 수입 감소, 사회활동 단절,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와 같은 개인·사회 문제를 낳기도 한다. 이 시점에 이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과 준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참여 및 기여가 가능하다는 개념의 생산적 활동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현대 노인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오늘날 서구 각국은 노년기를 단순히 무노동의 시기가 아닌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시기로 인식하며 노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에 UN이 채택한 마드리드 노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in Ageing)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고용증진을 강조하였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공헌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노년기 활동을 생산적 측면과 결부시켜 건강하고 독립적이라는 긍정적인 관점과 가족 및 사회의 부양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잠재우고 사회통합의 단초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활동이론의 연장선에서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라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다(윤순덕, 2003).

은퇴 후 줄어든 소득과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

취미・여가 활동의 문제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정책이 존재하지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에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및 생활만족도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 증가를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이 발표한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작 첫해에 일자리 3만 5천개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22만 개로 첫해에 비해 무려 6배가 확대 추진되어 왔으며 예산규모 역시 2004년 292억에서 2011년에 3,116억 원으로, 첫해에 비해 무려 10배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적 활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와 함께 생산적 활동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생산적 활동이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최근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중・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들(안현선・김효민・ 안진경・김양희, 2009; 한은정・ 김경화, 2010; 고선강, 2011)이 발표되었는데 생활만족도와 노후준비, 노후인식, 여가활동, 노후생활비 관계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 연구들은 노후준비가 중・노년층 삶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들에서 나타난 중・노년층의 생활만족도와 노후생활비준비의 관계, 생산적 활동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과 동시에 노년기에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길어진 노년기의 노후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생산적 활동을 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꾀하며, 연구결과는 노년층의 노후준비와 생산적 활동 그리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관련되는 정책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후준비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다(박창제, 2008). 즉,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며 노년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접근방식이 다양했는데, 대체적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노후준비가 포함되었다(김기태, 2004; 김인숙, 2004; 배문조・전귀연, 2004; 조미영, 2006).

국내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배문조・전귀연(2004)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로, 김인숙(2004)은 경제적, 신체적, 건강주거, 여가준비로, 성말순(2004)은 노후준비의식,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준비로, 배문조(2009)는 노후준비의식을 노후준비시기, 국가 노후정책 관심도, 노후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 주거에 대한 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조추용 외(2009)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준비로 설명하고 있다.

노후준비는 개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 생활의 적응 및 질 향상을 위해 중년기부터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노후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가족생활주기에서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부부만의 시간이 과거보다 길어지게 됨에 따라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년기인 제3의 인생시기에 대한 준비 부족은 경제수준 저하와 함께 사회활동의 기회단절로 이어져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김주성, 2010)시키므로 노후준비는 사회적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선행연구의 구분에 따라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로 구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는 건강을 위해 평상시에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를 나타낸다. 둘째, 경제적인 노후준비는 노후에 가계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생활단계에서 축척해 놓은 재산이나 저축의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인 노후준비는 정서적 의지가 될 수 있는 가족 및 친구 등과 기술습득이 가능한 일과 여가활동 등 사회적 영역의 노후준비를 의미한다. 한편,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상실이 곧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역할상실을 경험한 이후 스스로 새롭게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사교모임, 취미, 운동, 자원봉사모임 등의 사회참여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후 소외감,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공적 노후를 보내기 위함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노력과 원만한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여가활동, 교육, 일 등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최신덕 · 김모란, 1998; 신승희, 2010; 최혜련, 2012).

##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행복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목적의 조화로운 만족도를 의미 한다(Chekola, 1975).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년기 생활 적응, 정신 건강, 성공적 노화 등의 주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다양한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개념적 정의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소광섭, 2007).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Neugarten, Havighurst, 와 Tobin(1961)의 따르면 생활만족도란 매일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Medley(1976)는 개인의 상대적인 인식에 기초한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주장했다. 즉,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대가 형성되고, 이런 기대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며, 개인의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생활만족도라고 보았다(Medley, 1976).

Burr(1979) 등은 만족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 만족이란 한 개인이 갖는 기대와 실제로 받은 보상 사이의 일치이고, 둘째,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족, 혹은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의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생활만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결국 위의 두 가지 개념으로부터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도출한 것을 알 수 있다(김규엽, 2005 : 8, 재인용).

종합하면 생활만족도란, 포괄적이고, 함축적이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지향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고, 개인 스스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느끼는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의하여 연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전반에 걸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 즉 단순한 물질적 풍요이상의 포괄적인 심리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3. 생산적 활동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뿐 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가족 및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가사활동, 시민참여활동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는 일체의 활동들(Rowe & Kahn, 1999)뿐 아니라 금전적 보상과는 무관한 '이타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가치 있는 활동들(Klumb & Baltes, 1999)을 생산적 활동으로 보는 광의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이론은 과거에는 새로운 사회활동을 찾아 능동적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활동이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활동의 총량과 단순히 그 증감을 강조하는 활동이론 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강조하는 역할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들(Mclntosh & Danigelis, 1995)도 늘고 있다. 역할이론은 은퇴 등으로 인한 역할의 변화, 즉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고 새롭게 얻는 역할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Mclntosh & Danigelis, 1995). 이 두 가지 이론의 관점은 생산적 활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서로 강조하는 바는 다르지만 생산적 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상호 보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논의는 Herzog (1989) 등이 기존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정의가 '유급 노동' 만으로 한정되어있어 연령에 따른 역차별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노인 활동이 비공식적 도움이나 무급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를 위한 생산적 기여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급 활동만을 생산적 활동으로 보는 것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기여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었다. Bass(1993) 등은 시장 지향적 활동만을 생산적 활동으로 보는 경제학적 논리는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하였고 이는 생산적 활동의 포괄적 개념에 근거가 되었다(Jun, 2001). 이들은 생산적 활동을 사회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인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생산적 활동으로 산출된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은 급여의 여부에 따라 유급활동과 무급활동으로, 노동행위 장소에 따라 가사활동, 직장 취업, 지역사회활동, 단체 활동으로, 그리고 관계의 공식성에 따라 정규 직업이나 공식적 단체 활동, 비공식 자원봉사활동이나 타인에 대한 원조활동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무급활동에 대해서는 자가 간호, 가사활동, 자원봉사, 종교활동, 원조활동, 취미활동 등 다양한 영역이 측정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유급과 무급활동, 공식과 비공식 원조활동 등이 생산적 활동 유형을 측정 시 고려되었던 공통적 분류임을 알 수 있다. 김주현(2007)의 연구는 유급노동의 유형을 이용하여 생활만족도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유급노동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유기반 유급 노동형과 생계기반 유급 노동형으로, 참여동기에 따라 자발적 유급 노동형과 비자발적 유급 노동형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고 여유기반 유급 노동형 및 자발적 유급 노동형이 각각의 비교대상 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강이주 · 이영애(2010)의 연구에서는 유급노동이 무급노동보다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성별의 경우 남자 노인의 경우 유급종사자가 여성노인의 경우 무급 가족종사자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진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노인의 유급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의 개발과 참여가 요구된다.

서구의 경우 자녀원조활동을 가사활동(Danigelis & McIntosh, 1993), 비공식 자원봉사활동(McIntosh & Danigelis, 1995), 혹은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원조활동(Jun, 2001)으로 인정하여 생산적 활동에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내 노인들 상당수가 자녀가구의 가사활동 및 손주 돌보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비공식활동 안에 포함시켰다.

## 4. 노년기 노후 준비도, 생산적 활동, 생활 만족도의 관계

### 1) 노후 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Saleebey, 1992)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박기남, 2004; 박창제, 2008;이선형・최은희, 2010)와 신체적 노후준비가 잘 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임경자, 2002),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최은정, 2004; 이정화, 2009; 최혜련, 2012)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요인은 신체적,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준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김주성・최수일, 2010).

그러나 경제적(재정) 스트레스가 노인들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하여 생활만족도를 저하 시킨다는 연구(박혜성, 2007)도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각각의 노후준비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로 연구되었던 각각의 영역(신체・경제・사회적)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각 영역의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활동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생산적 활동의 근저에는 노인의 다양한 생산적 활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며 이를 통한 생활만족도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활동 참여로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행복한 노년, 즉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향상의 과정일 것이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통합된 개념의 생산적 활동이 아닌 영역별 관계에 치중 해왔다. 노년기 경제활동(Kalish, 1975; Chatfield, 1977; Kuhelen, 1984; Mannell & Dupuis, 1996), 사회참여(Bull, 1975; Knapp, 1979; Champman & Beaulet, 1983), 자원봉사(Thoits & Hewitt, 2001;Li & Ferraro, 2006), 여가 활동(Iso-ahola, 1980; Tinsley et al., 1985; Riddick, 1986) 등 각각의 활동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적으로 검증되어 왔고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기 보다는 일부 측면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 다양하게 경험하는 활동들의 서로 다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생산적 활동의 개념을 이용하여 노년기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

Rodin과 Langer(1980)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노

인의 노후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생산적 활동이 많은 노인일수록 자신의 나이보다 스스로를 더 젊게 느낌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노후준비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생산적 활동의 일부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uhlen(1984)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기 쉬운데 이는 노인들의 노후준비도가 낮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의 노후준비도가 생산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만족도의 일차적 관계뿐 만 아니라 노년기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평가되는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는 향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만약 노년기 생산적 활동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생활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의 매개경로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연구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및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 5.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으로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력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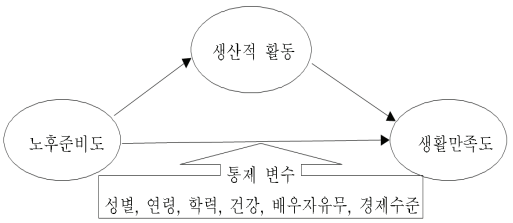
우선,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그런 견해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을 비교할 때 객관적인 조건의 취약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 줄 경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박기남, 2004). 반면에, 노인의 성별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Ling, 1982). 연령 간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고령의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박충선, 1990)가 있으며, 반대로 낮은 연령의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수연, 1987)로 나누어져 연구자들 간 실증적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력의 노인들이 저학력의 노인들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영은, 1990; 김미진, 1999).

그러나 교육수준 자체 보다는 그에 따른 직업과 소득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해가 가능하다. 김미영·손서희·박미석(2011)에서는 남성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은퇴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에서 기인 한다고 보았다. 결국 노인의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진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사별노인이나 미혼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Rily & Former, 1986). 노인의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Chou & Chi, 2004) Smith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변수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포괄하는 연구모형을 정리하고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노후준비도가 생산적 활동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측정변수

**1)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Havighurst, Neugarten & Tobin (1961)이 개발한 LSI-A(Life Stisfaction Ivdex-A)를 바탕으로 이상매·최수일(2012)이 6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로, '나는 다름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의 Likert척도 5단계로 측정하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응답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2점 사이이다. 척도의 내적 타당도는 Cronbach's alpha= .90 이다.

**2) 독립변수 : 노후준비도**

노후준비도의 측정을 위하여 강유진(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노후준비 등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로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한다' ,'어느 정도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의 Likert척도 5단계로 측정하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18문항으로 응답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90점 사이이다. 척도의 내적 타당도는 Cronbach' alpha= .71이다.

**3) 매개변수 : 생산적 활동**

생산적 활동의 측정은 홍현방(2005)의 생산적 활동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알 수 있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산적 활동을 무급활동과 유급활동으로 분류한 후, 유급활동은 경제활동(1문항)으로, 무급활동은 공식(4문항)과 비공식활동(4문항)으로 나누었다. 공식 활동은 1)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다니기, 2)사회단체활동 참여(동창회, 친목회, 종교모임 등), 3)투표하기, 4)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이며, 비공식 활동에는 1)친구만나기, 2)가사활동, 3)손·자녀돕기, 4)취미활동에 관한 질문이다.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한다' ,'어느 정도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의 Likert척도 5단계로 측정하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응답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2점 사이이다. 척도의 내적 타당도는 Cronbach's alpha= .70 이다.

#### 4) 통제변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밝혀진,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수준, 학력수준, 건강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변인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s)화 하여 처리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를 0, 남자를 '1'로 하였고, 연령의 경우 75세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무'를 0, 유를 '1'로 하였으며 '학력'은 1=무학, 2=초등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경제와 건강수준'은 1=매우 안 좋음, 2=안 좋음, 3=보통, 4=좋음, 5=매우 좋음으로 나누었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및 출처

| 변수 | 문항 | 신뢰도(α) | 출처 |
|---|---|---|---|
| 생활만족도 (종속변수) | 12 | .90 | 이상매, 최수일(2012) |
| 노후준비 (독립변수) | 18 | .71 | 강유진(2005) |
| 생산적 활동 (매개변수) | 18 | .70 | 홍현방(2005) |
| 인구사회학적 요인 | 6 | · | |

### 3. 자료수집 및 윤리적 연구 방법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한 이 연구는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2주 동안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경기 일부 지역의 종합·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집 하였다. 총 연구에 동의한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40부가 회수되어 85%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연구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인 14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226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윤리적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첫째, 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시설장·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둘째, 연구자가 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연구 대상자들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100%자발적인 동의를 한 경우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셋째, 연구의 중요성, 목적, 예상되는 위험들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넷째, 100%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Ⅳ.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 성별, 배우자 유무, 경제수준, 학력수준, 건강수준의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75살 미만 (51.3%)이 75세 이상 (48.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 (52.7%)이 남성 (47.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유무에서는 56.6%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

〈표 2〉 인구 · 사회학적 특성(N=226)

| 요인 |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연령 | 75세 미만 | 116 | 51.3 |
| | 75세 이상 | 110 | 48.7 |
| | 합 계 | 226 | 100 |
| 성별 | 남성 | 107 | 47.3 |
| | 여성 | 119 | 52.7 |
| | 합 계 | 226 | 100 |
| 배우자 유무 | 배우자있음 | 128 | 56.6 |
| | 배우자없음 | 98 | 43.4 |
| | 합 계 | 226 | 100 |
| 경제수준 | 매우 좋지 않다 | 12 | 5.3 |
| | 안 좋은 편 | 41 | 18.1 |
| | 보통 | 137 | 60.6 |
| | 좋은 편 | 28 | 12.4 |
| | 매우 좋은 편 | 8 | 3.5 |
| | 합 계 | 226 | 100 |
| 학력수준 | 무학 | 6 | 2.7 |
| | 초졸 | 39 | 17.3 |
| | 중졸 | 46 | 20.4 |
| | 고졸 | 71 | 31.4 |
| | 대졸 | 57 | 25.2 |
| | 대학원 | 7 | 3.1 |
| | 합 계 | 226 | 100 |
| 건강수준 | 매우 안 좋음 | 9 | 4.0 |
| | 안 좋음 | 30 | 13.3 |
| | 보통 | 108 | 47.8 |
| | 좋은 편 | 64 | 28.3 |
| | 매우 좋음 | 15 | 6.6 |
| | 합 계 | 226 | 100 |

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경제수준은 보통(60.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안 좋은 편 (18.1%), 좋은 편(12.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고졸(31.4%)이 그 다음이 대졸 (25.2%), 중졸(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은 보통(60.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좋은 편(28.3%)으로 나타났다.

## 2. 기술통계 분석

각 변수의 평균은 생활 만족도는 3.42점, 생산적 활동은 3.01점, 그리고 노후준비도는 2.86점을 기록했으며 또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측정변수의 기술통계(N = 226)

| 구분 | N | M | SD | 왜도 | 첨도 |
|---|---|---|---|---|---|
| 생활 만족도 | 226 | 3.42 | .69 | -.02 | .10 |
| 생산적 활동 | 226 | 3.01 | .58 | .05 | .08 |
| 노후준비도 | 226 | 2.86 | .50 | -.24 | -.14 |

###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상관계수의 크기, 공차한계, 분산팽창요인의 크기를 검증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7이하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Hair, et al., 1998),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7이상 되는 것이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각 변수의 상승변량(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에 근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상관분석(N = 226)

| | 1 | 2 | 3 |
|---|---|---|---|
| 1. 생활 만족도 | 1 | | |
| 2. 생산적 활동 | .517*** | 1 | |
| 3. 노후 준비도 | .346*** | .416*** | 1 |

1) ***p<.001

### 4. 연구모형 분석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중회귀분석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고 단계별로 주요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노후준비도를 독립변수로, 생산적 활동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생산적 활동을 독립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노후준비도와 생산적 활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노후준비도가 생산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1단계 다중 회귀식(F=13.325, p<.001)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노후준비)는 종속변수인 생산적 활동의 변량(Variance)을 30.0% 설명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beta$=-.204, p<.01) 과 건강수준($\beta$=.199, p<.01)이 생산적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생산적 활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수준이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에 비해 생산적 활동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beta$=.398, p<.001) 생산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노인의 생산적 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상식적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생산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증가를 위해 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까지 포함한 통합적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창제(2008)에 따르면 현재의 노인들은 건강유지 및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경제적 생산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안정이나 재취업과 같은 경제적 생산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적 활동의 증가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높은 관심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들 개개인의 신체·경제·사회적 노후준비가 우선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인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하며 가족과 사회와의 긍적적 상호작용을 통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가족생활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의 필요성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제시된<표 5>와 같다.

**2)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단계 생산적 활동을 독립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생산적 활동에 대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36.0%로 나타났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경제수준($\beta$=.242, p<.001)과 건강수준($\beta$=.137, p<.05)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적 활동 ($\beta$=.425, p<.001)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생산적 활동의 정의를 사용했기에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생산적 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했던 선행연구(Kalish, 1975; Chatfield, 1977; Kuhelen, 1984; Mannell & Dupuis, 1996)와, 사회활동 혹은 공식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밝혀냈던 선행연구(Bull, 1975; Knapp, 1979; Thoits & Hewitt, 2001; Li & Ferraro, 2006) 및 비공식적 활동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증명했던 선행연구(Iso-ahola, 1980; Tinsley et al., 1985; Riddick, 1986)와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란 삶의 질에 대한 노인의 총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하기에 가족자원경영분야에서 추구하는 노년기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생산적 활동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3) 노후준비도와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노후준비도와 생산적 활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통제변수를 같이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은 생활만족도에 대해 모델 1에서 28.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적 활동이 추가된 모델 2에서는 9.3%증가한 37.5%의 설명력을 나타

〈표 5〉 노후준비가 생산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
| | B | 표준오차 | $\beta$ |
| 인구사회학적 요인 | | | |
| 연령(75미만=1) | .048 | .054 | .058 |
| 성별(남=1) | -.237 | .072 | -.204** |
| 경제수준 | .043 | .046 | .060 |
| 건강수준 | .129 | .038 | .199** |
| 교육수준 | .057 | .031 | .116 |
| 배우자유무(유=1) | -.130 | .077 | -.111 |
| 노후준비도 | .456 | .068 | .398*** |
| F | 13.325*** | | |
| $R^2$ | .300 | | |

1) **p<.01, ***p<.001, 2)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표 6〉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 | B | 표준오차 | $\beta$ |
| ·인구사회학적 요인 | | | |
| 연령 | .081 | .062 | .081 |
| 성별 | -.031 | .083 | -.022 |
| 경제수준 | .208 | .052 | .242*** |
| 건강수준 | .106 | .045 | .137* |
| 교육수준 | -.048 | .035 | -.082 |
| 배우자유무 | .016 | .089 | .011 |
| 생산적 활동 | .507 | .070 | .425*** |
| F | 17.538*** | | |
| $R^2$ | .360 | | |

1) *p<.05, ***p<.001, 2)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내고 있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델 1에서는 경제수준($\beta$=.240, p<.001), 건강수준($\beta$=.214, p<.001), 노후준비도($\beta$=.285, p<.001)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델 2에서는 경제수준($\beta$=.218, p<.001), 건강수준($\beta$=.142, p<.05), 노후준비도($\beta$=.140, p<.05), 생산적 활동($\beta$=.364, p<.001)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년기를 윤택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에 따라 노후준비도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Chatfield, 1977), 건강상태가 좋을수록(성말순, 2004; Chou & Chi, 2004)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현재의 경제·신체적 상황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그 영향력이 입증 되었으며, 생산적 활동의 공식·비공식(홍현방, 2005)의 다양한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재확인되었다.

모델 2에서 노후준비도는 모델 1 보다 그 영향력이 아주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적 활동이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노후준비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노후준비도와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침으로써,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노인의 노후준비도와 생산적 활동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즉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노후준비도가 생활만족도의 증진과 직결되는 변인이지만 노인의 취업 및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의 증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생산적 활동의 결과는 노인과 그들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산출된 경제적·심리적 자원임을 고려할 때 생활자원의 관리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매개변수인 생산적 활동이 독립변수인 노후준비도의 다중공선성에 대해 공차한계와 VIF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6에서 0.9 사이였고, VIF값 역시 1.1에서 1.5사이로 나타나

〈표 7〉 노후준비도와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 | Model | Model 2 |
|---|---|---|
| | $\beta$ | $\beta$ |
| ·인구사회학적 요인 | | |
| 연령 | .116 | .095 |
| 성별 | -.116 | -.042 |
| 경제수준 | .240*** | .218*** |
| 건강수준 | .214*** | .142* |
| 교육수준 | -.028 | -.071 |
| 배우자유무 | -.038 | .002 |
| 노후준비도 | .285*** | .140* |
| 생산적 활동 | | .364*** |
| F | 12.260*** | 16.298*** |
| $R^2$ | .282 | .375 |

1) *p<.05, ***p<.001, 2)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인 생산적 활동은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 중 Mackinnon, Lock wood, Hoffman, West와 Sheet(2002)에 의해 활용된 검증방법을 적용하였고,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SE_a^2) + (a^2SE_b^2)}}$$

이 공식에 따라 노후준비도 에서 매개변수인 생산적 활동으로 가는 경로 a의 비표준화 회귀계수(B=.456) 및 표준오차(SEa=.068)의 값과 생산적 활동에서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 b의 비표준화 회귀계수(B=.507) 및 표준오차(SEb=.070)의 값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아래 <표 8>에 제시되어있다.

〈표 8〉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 경로 | Z | P-value |
|---|---|---|
| 노후준비도→생산적 활동→생활만족도<br>노후준비도 → 생활만족도 | 4.92*** | .000 |

1) ***p<.001

Sobel test 검증결과,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 통계량 (z)값이 4.9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적 활동이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도와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천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생산적 활동의 역할을

알아보는데 실천적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도와 생산적 활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인 성별과 건강수준 그리고 노후준비도가 생산적 활동에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요인인 경제수준과 건강수준 그리고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인 생산적 활동이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함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 측면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생산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찾아냄에 따라 개별 노인의 특성에 근거한 실천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생산적 활동의 경우 노인들의 인적자원이 잘 활용되기 위하여 경험과 지식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은 노인 인적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노인 직업훈련의 경우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종에 그치고 있어 자원 개발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이성은, 2013)는 비판은 접어두고 노인의 신체적 건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생산적 활동의 논의조차 무의미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한다. 둘째, 생산적 활동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따라서 100세 사회의 능동적이며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는 공식·비공식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노인의 삶의 질 및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식적 활동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활동체계 내에서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통하여 노인이라는 인적자원에 대한 현실적 평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부정적 편견 속에 가려 비생산적 존재로 여겨진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합리적 평가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계기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넷째, 노인인구의 사회적 부담에 관한 인식을 개선, 즉 노인인구의 증가가  비생산적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식·비공식적 기여가 가능한 인력 및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양질의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가족자원 및 사회에 원조 활동이 가능한 생산적 집단이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의 증가는 노령문제의 자체적 해결과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폭 넓은 생산적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인적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노인들은 이전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소득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균형적으로 영위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집단이다. 따라서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통해 이들의 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흡수하는 것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가족 역할의 강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가족원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가족자원에 대한 정책의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표집방법 및 조사지역의 한정성과 같은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일반적 특성만을 통제변인으로 두었기 때문에, 노인들의 노후준비도, 생산적 활동과 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외생변인에 대한 통제를 통한 순

수한 인과관계의 규명에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노후준비도, 생산적 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을 사용하였다. 즉,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넷째, 생산적 활동을 세분화한 분석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현방(2005)의 척도를 사용함으로서 생산적 활동의 분류에 따른 영향을 보지 않고 생산적 활동의 전체적인 효과를 살펴봤다. 즉, 활동유형에 따라 다른 매개효과가 나타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현재의 비경제적 활동을 ① 공식활동(복지관・경로당・노인대학 다니기; 사회단체 활동; 투표하기), ② 사교 및 교육활동(친구만나기;취미활동), ③자원봉사 활동, ④가사활동(손자녀 돕기; 가사활동), 4개로 재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노후준비와 생산적 활동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적 분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생산적 활동과 노후준비에 대한 진행과정과 시차적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생산적 활동과 노후준비 방법도 다양하며, 이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시간적 흐름의 순서로 진행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과 노후준비의 생애주기적 분석, 단기 및 장기적 생산적 활동과 노후준비의 상호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가족인적자원의 요인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녀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등을 포함한 정보,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망 은퇴연령,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노후생활비에 대한 제공자 및 수혜자의 인식, 생산적 활동의 인식(여가, 자원봉사, 경제, 사회참여 관계 등) 등을 고려한 연구모형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후준비와 생산적 활동, 생활만족도의 관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임으로서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강이주・이영애(2010).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동거유형이 건강수준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1031-1044.
2) 강유진(2005). 한국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3) 고선강(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 자원 경영학회지, 15(1), 157-175.
4) 곽인숙(2011). 노인의 자녀와의 상호간 지원교환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07-127.
5) 김규엽(2005).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여가활동 활성화 실시 경로당과 미실시 경로당의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기태(2004).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미영・손서희・박미석(2011).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과 은퇴 후 삶의 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65-78.
8)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양이・이채우(2008).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10) 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김주성(2010).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김주성·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13) 김주현(2007)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합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14) 노무라 종합연구소(2014). 2014 한국경제 대예측. 서울: 청림출판사.
15) 박기남(2004).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16)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17) 박충선(1990). 한국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115-153.
18) 박혜성(2007).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박혜성·계선자(2008).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57-72.
20)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21)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22) 보건복지부(2012). 국민연금, 사적연금 및 노후준비 인식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3) _____(2009). 노인실태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보건복지부.
24) 소광섭(2007). 도농복합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 노인복지연구, 38(1), 7-30.
25) 서지원(2008).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31-55.
26) 성말순(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29) 윤순덕(2003).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이상매·최수일(2012). 여성노인의 건강증진 행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 학회지, 12(7), 203-214.
32)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33) 이성은(2013).빈곤노인의 경제활동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39-58.
34) 이영은(1990). 노인의 성격 유형과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36) 장연주·서지원(2011).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29-49.
37) 조미영(2006). 중년층의 노후생활대책에 관한 연구. 한일 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39) 최신덕・김모란(1998). 노년사회학, 서울: 하나의학사.
40) 최은정(2004). 농촌노인들의 노후준비 실태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 최혜련(2012).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2)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 2012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3) 한국투자보호재단(2011). 2011 펀드투자자 현황조사, raw data 분석. 한국투자보호재단.
44) 한은정・김경화(2010)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여가활동참여의 매개역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231-232.
45) 홍현방(2005). 생산 활동 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46) 통계청(2013). 장래인구 추계. www. nso. go. kr. 통계청.
47) _____(2011). 장래인구추계: 2010 인구 주택 총 조사기준. 통계청.
48) _____(2010). 2010고령자통계. www. nso. go. kr. 통계청.
49) _____(2009).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www. nso. go. kr. 통계청.
50) Bass, S. A., Caro, F. G. & Chen, Y.(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 T: Auburn House.
51) Bull, C. N.(1975).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30(1), 73-76.
52) Burr, J. A., Caro F. G. & Moor head, J.(2002). Productive aging and civic participation. Journal of Aging Studies, 16(1), 87-105.
53) Chekola, M. G.(1974). The concept of happines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SA.
54) Chou, K. L. & Chili.(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55) Clark R. L. & Spengler J. J.(1980). The economics of individual and population ag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919-962.
56) Danigelis, N. L. & McIntosh, B. R.(1993). Resource and the productive activity of elders: race and gender as contexts. Journal of Gerontology, 48(4), S192-S203.
57)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58) Iso-ahola, S. E.(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owa: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59) Jun, H. J.(2001). Productive roles activities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older adults,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60) Kalish, R. A(1975). Aging self and personality Late Adulteni per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Caili Wordsworth Publishing company.
61) Klumb, P. L. & Baltes, M. M.(1999). Time use of old and very old Berliners: productive and consumptive activities as functions of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54B(5), S271-S278.
62) Knapp, M. R. J. (1976). Predicting the Dimension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5), 595-604.

63) Kuhelen, R. G.(1984). Developmental Change in Motivation during the Years: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64) Li, Y. & Ferraro, K. F.(2006). Volunteering in middle and later life: Is health a benefit, barrier or both? Social Forces, 85, 497-519.
65) Ling, J.(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1), 85-89.
66)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 V.(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67) Medley. M. 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49.
68) McIntosh, B. R. & Denigelis. N. I.(1995). Race, gender and the relevance of produtive activity for elders affects. Journal of Gerontology, 50B, S229-S239.
69) Neugarten, B. L., Harvighurst, R. J. & Tobin, S. S.(1961). The measur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51(3), 48-69.
70) OECD National Accounts(2010). Household production in OECD Countries: Data sources and measurement method. National Accounts Publications.
71) Riddick, C. C.(1986). Life satisfaction precurs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59-265.
72) Rily, W. W. & Former, A.(1986). Aging and Society: Inventory of Research Finding. N. Y: Russel Sage Foundation.
73) Rodin, J. & Langer, Z.(1980). Aging levels: the decline of and the full of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63.
74) Rowe J. W. & Kha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est, 37, 433-440.
75) Saleebey, D.(1992). Conclusion: Possibilities and Problems with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ed.). New York: Longman.
76) Smith, J., Fleesom, W., Geiselmann B., Settersern Jr. R. A. & Kunzmann, U.(2001). Sources of well-being in very old age. In P. B. Baltes & K. U. Myer(Eds.).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 Tinsley, H. A., Teaff, J. D., Colbs, S. L. & Kaufman, N.(1985). A system of classifying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articipation reported by older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40(2), 172-178.
78) Thoits, P. A. & Hewitt, L. N.(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15-131.
79) United Nations.(2002). Report of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ing. UN.
80) _____(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UN. precurs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59-265.

■ 투 고 일 : 2014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11일